



캄보디아성결신학대학

2021년 첫번째 편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35, 37절 말씀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동역교회 위에, 평강의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이 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집으로 돌아오다

저는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어, 캄보디아에 입국하였습니다. 2주 간의 격리도 마치고 신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매 순간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주변에 아끼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소천하셔서 천국에 보내드리기도 하였고, 깊은 병고에 시달리시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되어 선교사님들이 꿈쩍 못하게 되시는 암담한 상황을 보며,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저의 입국 후 중국인들이 단체로 입국하였는데, 변이된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격리 장소를 탈출하여 유흥업소에 갔다가, 강제 출국과 영구 입국정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격리가 더 힘들어지고, 출입이 통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폐쇄되는 등 이곳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제(2월27일)는 신학교 근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주일 예배를 앞두고 많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월 신학기 개강이 다가오는데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조심스럽게 새 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이던 1층 예배실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번 주일부터는 새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학기 시작

복귀하자마자 저의 부재 동안 밀려있던 일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던 한국과 달리 이 곳은 겨울임에도 매우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매우 덥게 느껴집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에도 모기가 너무 많아 잠을 설치는 날이 여러 날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너무 그리워 지는 요즘입니다. 이 번 학기에는 그동안 기다리던 남학생이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때 처음 만난 라이 브리는(20세)은 인상도 좋고, 착한 심성이 느껴져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신학교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파수꾼,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스라이 너잇도 이 번 학기에 복학하여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라 전도사

저희 부부 기도 제목 가운데 노총각 다라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도록 결혼을 못하여 안타깝고, 빨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역에도 더 집중하면 좋겠다고 기도하던 중, 다라 전도사가 저를 방문하여 너잇자매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라도 집안의 장남이고 너잇도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 걱정이 되었으나, 마음이 정해졌으니 함께 기도해보자고 하고 축하한 뒤 헤어졌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사정을 전하였는데, 북아현교회에서 결혼식을 도와주시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월23일을 예식날로 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새롭게 탄생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응 전도사

늘 열심히 사역하며 기도하는 이응전도사가 캄보디아 국가검정고시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후 프놈펜왕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성실함으로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깨오 장평교회

나비전도사님(古시냇전도사사모)이 우여곡절 끝에 1학년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비전도사가 학기를 보내는 동안 필립(15)과 호산나(4)를 연로하신 할머니에게 맡기고 신학교 기숙사에 머물러야 하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천안교회 중보 기도팀에서 나눠드린 기도 편지를 보시고, 필립의 학비를 후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신학기부터 필립은 나비전도사와 함께 신학교에서 묵으며 근처에 있는 미션스쿨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주말에는 오토바이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교회로 이동하여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학업과 안전,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서, 나비전도사가 신학교를 잘 마치고, 필립도 잘 자라서古시냇전도사의 뒤를 이은 믿음의 리더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예진이는 계속 병원에 다니며 발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장시간 걸을 시 통증이 심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계속 병원 시술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아들과 아내는 캄보디아 상황을 보며 입국 시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캄보디아에 입국하면 사역자 자녀들 중심으로 유치원을 시작하고 싶어하는데 우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선교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님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모든 씨앗이 밀알이 되어 캄보디아 땅에 값지게 뿌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 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2. 2021학년도 1학기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신학생들이 성경 충만하도록.
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도록.
4.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위하여.
5. 예진, 용진, 용빈이의 신앙과 건강, 학업을 위하여.

2021년 3월 1일 김응수 조은혜 예진 용진 용빈 선교사 드림